

May 12, 2019

마더스데이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양 예수 우리 왕이여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579장(통304, 어머니의 넓은 사랑)

Prayer 기 도 황동균 집사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잠언23:22-25

Choir 성가대찬양 “낳으시고 길러주신”

Sermon 말 씬 김원기 목사

“ 너를 낳은 부모 ”

☉Prayer 기 도 다같이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00

☐ 성가대연습 / 마더스데이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왕상2:1-9 ☐ 제목: 다윗이 솔로몬에게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라계용권사	인도 : 라태한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정식장로	인도 : 조홍진장로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최은자권사	인도 : 최 활집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9년 표어 또 “예수님처럼-예수님처럼”(요15:10)
- 이달에 입을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 2019년 5월 행사계획
5/12 마더스데이(효도잔치,카네이션데이)
5/19 교육부수련회편드레이징
5/26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효도선물, 카네이션, BBQ)
- 6월달부터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 교육부수련회가 6월24-26일(수)까지 있습니다.
7. 교우동정
-김창님 권사(LA 작은 딸집)
-한경완 권사(팜데일 큰 딸집)
- 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2부 대표기도순서
5/19 성기현장로 5/26 최활집사 6/2 조홍진장로 6/9김용훈집사
토요일 새벽기도순서
5/18 성승록권사 5/25 김봉재권사 6/1 장정님권사 6/8 최은자권사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 |
|-------------------|------------------|
| ☐ 기도 : 1부- 합심기도 | •2부- 성기현 장로 |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 •2부- 예배위원 |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 |
|--------------------------|---------------|
| ☐ 교육목사 : | ☐ 전 도 사 : 황창원 |
| ☐ 시무장로 : 김경식 라태한 성기현 조홍진 | ☐ 협동장로 : 원동길 |
| ☐ 음향간사 : 장정관 | |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	선교헌금 : \$
주일헌금 : \$	마더스데이지정헌금:
감사헌금 : \$	기타 : \$
자녀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본문 : 잠언22:1-6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현명하게,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1)

명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쉘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먼저 택해야 할 것이 바로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명예'라는 말을 '좋은 평판'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해석이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택하라는 것은 내가 이땅에서 받은 존재의 목적을 알면 우리의 이름(명예)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택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재물을 쌓아 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 하반절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은이나 금도 좋지만 무엇을 더욱 택하라고 권면합니까? '은총'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총 바로 '호의'입니다. '친절한 마음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 재물을 경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재물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물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지킬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 이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이드를 주는 것입니다.

2. 함께 사는 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2)

2절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마주치며 살게 되는 이 세상에서 부자는 가난한 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는 부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함께 마주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설교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둘 다 알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면서 자신도 이 세상에 올 때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은 뜻밖에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주종관계', '갑과 을의 관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난다.' 타락한 사회,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類類相從)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하게 분열되는 시간이 주일 아침 11시라는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